

1.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삼상 13:1-14, 15:11) 사무엘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당신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어느 정도로 기도해 보았는가?
2.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자라고 판단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6-7) 당신에게도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 경험이 없는가?
3.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중심>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4.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필요한 지도자는 화려한 외적조건을 갖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자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눈에 띄지 않는 내면의 것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 흔히 사무엘의 기준에 좌우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해 보자.
5.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에 따라 우리도 사람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후 5:15-17)
6. 10대 양치기 소년 다윗은 기름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리고 다시 양을 치기 위해 들로 나갔다. 기름부음 받은 다윗이 예전처럼 다시 일터로 나갔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7.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시듯 어린 우리들을 준비시키고 계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지 이야기 해보자.
8. 오늘 공부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 해 보자.

1.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떠나시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 (참고/요14:16-17)
2.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성령은 떠나시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엡4:30) 그 결과 우리의 심령은 마치 성령이 떠나가 버리신 것과 같은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좌절감마저 생길 수 있다. 당신은 이러한 경험을 해 본적이 있는가? 또한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가? (요일1:9)
3. 성령께서 떠나시자 사울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14,15)
4. 음악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수없이 많다. 사울이 악신으로 말미암아 번뇌하게 되자 그의 신하는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한다. 음악을 주는 아름다운 선율이 주는 감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 지금도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거나 영적으로 공허해진 사람들이 음악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마귀가 가장 힘 있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속음악이다. 당신은 세상의 음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클래식, 가요 등)
5. 그의 찬양은 마귀의 권세를 꺾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찬양을 들은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23) 찬양을 통해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자.
6. 다윗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18) 그의 이러한 재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보라, 당신이 가진 재능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7. 다윗은 평소에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당신의 평소의 찬양생활은 어떠한지 이야기 해보자. 아마도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는 늘 찬양하며 보냈을 것이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목장에서 즐거우나 슬프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연습을 하자.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찬양의 사람이 되자. 일주간 각자 실천할 찬양 스케줄을 만들어 보자.

1.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엄포 앞에 사울과 그 군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11) 사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고 있는가?(25) 큰형 엘리압이 전쟁터에 온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28)
2.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을 자청한 동기가 무엇인가? 재물, 왕의 사위, 세금 면제가 그 동기인가?(25-26)
3. 다윗이 골리앗을 자기가 상대하겠다고 말하자 사울왕은 이를 말렸다. 두 사람의 말과 태도에는 이성과 신앙, 육적판단과 영적판단이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궁에 있던 사울과 목동에 불과한 어린 소년 다윗이 들판에 있으면서 각각 이들을 어떤 생활을 하였겠는가? 반드시 왕궁이 좋은 것인가? 빈들(광야)이 주는 이익은 무엇일까? (약1:2, 시 63:1-2) 광야(시련)를 만났을 때에 꼭 기억해야할 한 가지 사실을 고전10:13절에서 찾아보자.
4.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는 언제 어떤 경험을 통해 주어진 것인가? (34-37)
5. 골리앗의 위협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16) 이 무시무시한 공포는 다윗이 등장하면서 사라졌다. 다윗을 통해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이 40일 동안의 공포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가?
6.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가장 신장이 컸으며(10:23)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그도 한 때 암몬 사람 나하스를 대상으로 크게 승리를 거둔 장군이였다. (11장) 그런 그가 지금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떨고만 있다. 왜 이렇게 약해 졌는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 자신의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입혀 주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38)
2. 막대기를 들고 매끄러운 돌 몇 개를 고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서로 이야기해 보자.(40, 삼하 5:2절 참조)
3.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이 두 사람의 출전의 변을 볼 때 사실상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인가?(43/45)
4. 45-47의 다윗의 말을 볼 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알게 해 주고 싶은 것 두 가지가 무엇 무엇인가?
 - 1)
 - 2)
5. 긴박한 상황과는 달리 승패는 너무 쉽게 판가름 나고 말았다. 빈틈이 없이 중무장한 골리앗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사실을 배우게 되는가?
6.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 자신의 싸움이였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는 말, 병거, 군대의 수에 달려있지 않았다. 어린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전쟁준비는 철저한 믿음과 순종뿐이었다. 다음 구절들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해 보자. (출 14:13-14, 신20:1-4, 역대하20:15-17)
7. 신정 통치 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였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싸우시는가?(시18:1-3, 118:10-14)
8. 다윗이 골리앗의 병기를 왜 자기 텐트 안에 보관하였을까? (54)

1.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1)
2.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을 각각 어떻게 나타내었는가?
 - * 2절:
 - * 4절(창44:30)
3.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18:1)
4.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 성도들의 모델이다. 교회 안에 이런 신앙으로 맺어진 사람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 보자.
5. 아들 요나단에 반해 사울은 다윗에게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6-9) 당신은 이런 질투심으로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경험은 없는가?
6. 하나님에 의한 사실상의 왕위 교체식을 보여주는 구절을 찾아보자.
7. 사울 왕에게 질투심을 일으킬 만큼이나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다윗은 어떻게 처신했는가?(14)
8.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면 할수록 그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질투, 증오는 제삼자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서서히 죽이는 독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10) 시기심의 위험성에 대해 잠 14:30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1.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4번의 다윗 살해 시도가 기록되어 있다. 사울의 다윗 살해 계획에 동원 된 사람은 누구 누구인가?
2. 18:17-30에 나오는 다윗 살해 계획과 오늘 본문의 4번의 살해 계획을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달라졌는가?
3. 이 4번의 다윗 살해 시도는 딸과 결혼시킴으로서 그를 블레셋 군대의 손에 의해 죽이려 했던 이전의 것(18:17-30)보다 적극적이고, 공개적이고, 직접적이다. 그러나 사울의 다윗 살해 계획이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만큼 하나님께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다윗 보호 보호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4.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은 각각 어떻게 아버지 사울의 다윗 살해 계획에 대처하였는가? 이 사실이 다윗과 사울에게 각각 어떤 생각을 하게 하였을까?
5. 다윗이 사울을 피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옴으로 도피한 사실을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였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세 번에 걸쳐 군사를 보냈고, 마지막으로 자신 직접 그곳을 갔다. 이 살기등등한 군사들과 사울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6. 다윗을 죽이러 온 사울이 다윗이 보는 앞에서 하루 종일 벌거벗고 누워서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사무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신 것은 사실상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가?
7. 그 후로 생겨난 속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답을 했을까? Yes or No? 왜, 언제부터 사울이 이토록 비참해졌는가?
8. 사울의 두 자녀와 그의 군사들, 그리고 자신마저도 다윗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는 어떤 확신이 들었겠는가? (시18:2, 27:1)

1. 다윗은 사울의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 자신의 딱한 처지를 하소연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1-3)
 2. 다윗이 사울왕의 진의를 떠보기 위해 요나단에게 요청한 내용은 무엇인가?(5-7)
 3. 시험받는 두 사람-1) 다윗; 생존을 위한 자신의 직감을 신뢰할 것인가? 끝까지 친구를 신뢰할 것인가? 2) 요나단-가족에게 충성할 것인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4. 요나단의 고뇌: 오늘 본문에는 ‘부친’이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온다.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도 안전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라앉고 있는 배 위에 서 있다는 알았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했다. 승리하지 못할 줄 알았던 전쟁터에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실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활노래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삼하 1:23)
 5. 요나단의 결단: 요나단은 단지 친구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미래의 왕국(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다윗의 왕통을 통해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위한 위대한 결단을 한 것이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 왕국 건설에 대한 목소리는 요나단에게서만 나오고 있다. (14-15) 다윗이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가 장차오실 메시아의 조상이요, 장차 건설될 메시아 왕국의 시작자였음을 볼 때 오늘 요나단의 결단은 단순한 우정, 또는 전우애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보호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예수님)를 보호 하고 계시고, 이 일에 요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 일에 훌륭하게 쓰임 받고 있다. 엄청난 갈등을 하면서.
 6. 하나님의 인자 (unfailing love, kindness 8,14,15);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여 언약을 맺고 있다.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은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가? (삼하 9:1-7)
- * **헤세드**-언약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사랑.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 만약 그 약속을 끊는 것은 자신의 몸을 끊는 것(죽음)과 같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 이 사랑이 증명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롬 8:35-39)
9. 요나단과 다윗의 이별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41-42) 당신에게 이러한 슬픈 이별의 경험이 있었는가?

1. 요나단과 헤어진 후 다윗이 찾아간 곳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농이었다. 다윗의 방문을 받은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 다윗은 무엇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가? (2) 거짓말을 하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2.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요청한 2가지가 무엇인가? (3,8 참고/눅6:3-4)
3. 다윗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셨다. 이 떡과 칼을 가졌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4. 농에서 다윗은 어디로 도망하는가? (10) 그곳은 어떤 땅인가? (17:23) 어떤 생각으로 그곳에 갔을까? 왜 아기스 왕은 자기에게 도망 온 다윗을 맞아 주었을까?
5. 거룩한 떡을 먹여주시고 골리앗을 칼을 들려주셨건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드 땅으로 내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6.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아기스의 신하들은 왜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했을까?
7. 다윗은 가드에서 어떻게 도망하게 되는가? 이스라엘 땅 안에는 물론, 이스라엘 밖에도 다윗에게 안전한 곳이 없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 (시34:8)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스스로 이방나라의 왕 아기스의 종이 되려하고 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아기스의 종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기스의 신하들의 입을 통해 용기를 주시고 그의 신분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셨고, 또 그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보내고 계시다.

1. 가드 왕 아기스를 피해 다윗이 도망간 곳은 어디인가? 홀로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그곳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었을까?(시142:1-2)

* 아돔-볼레셋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유다 땅. 동굴이 많은 지역.

2. 혼자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 왔는가? (1-2) 자신도 쫓기는 신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신분인데도 부모 형제와 환난 당하고 빛진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자기에게로 몰려 왔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는가? 이들은 결국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인가?(시91:1)

3. 아둘람 특공대: 다윗 왕국의 최초의 군대는 어떤 자들로 구성되었는가?(2) 동굴 속에서 급조된 이들 군대와 사울왕의 모습을 비교해 보라(6절) 특히 창을 굳게 잡고 있는 사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4. 오합지졸의 외인구단 같은 이들 군대는 결국 다윗 왕국의 핵심 멤버들이 된다.(삼하 23:8~)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 동굴생활은 큰 전환점이 되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도 가졌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동굴 속에 숨어 있었지만, 곧 이런 것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윗이 동굴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나?(시142:2-5) 당신에게도 이런 동굴의 체험이 있었는가?

6. 다윗이 또 다시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인가?(3) 왜 하필 모압 땅으로 갔을까?(룻-오벧-이새-다윗) 당신도 부모님의 안전, 건강, 외로움 등 부모님을 위한 염려나 마음 쓰는 일이 있는가?

7. 모압 땅에 머물러 있던 다윗에게 선지자 갓은 다시 유대 땅 헤렛 수풀로 올라가라고 충고하였다. 왜 그랬을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가?

알송 달송 하나님의 뜻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탈출 후 그의 큰 딸에 의해 태어났던 자로, 평생 이스라엘의 원수나라였다. 이런 모압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롯 때에 예수님 조상(족보)의 피난처가 되었고 지금 또 다시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부모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다윗은 스스로 이스라엘(사울)의 원수임을 나타냄으로 원수의 나라의 보호를 받으려하였다. 분명 불신앙적인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까지 동원하여 다윗(결국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신다. 불신앙의 삶을 오히려 당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다.

8. 아히멜렉 가문의 대 학살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다.(2:31-32, 14:3) 그리고 살아 남은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한 죄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사독에 의해 대체가 되고 만다.(왕상 2:27) 이 사실을 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9. 하나님께서 다윗은 억지로라도 유대 땅에 머물게 하시고,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반면, 사울에게는 점점 사람들을 떠나게 하신다. 특히,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에게 대하는 사울의 태도와 아비아달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비교해보자.

10. 하나님께서는 혼자인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은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을 것이다(20). 아비아달을 만난 다윗은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가?(23)

다윗과 사울 비교

	사울	다윗
제사장	죽임	영접
백성	자기 백성을 죽임	자기 백성을 보호
돕는자	도엑	아비아달
돕는나라	에돔	모압

1. 자기의 위험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침공을 당한 그일라 지방을 구하러 가는 다윗의 모습에서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1-5) 그일라 전투를 통해 다윗과 사울은 각각 무엇을 깨달았을까?

2. 무턱대고 가드 땅으로 내려갔던 다윗의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2, 9-12) 반면 사울은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졌는가? 7절과 14절을 비교해 보라.

다윗의 성품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그일라와 십의 도시 전체를 파괴하려 하였다. 사울은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온 성을 파괴할 생각이었다.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자기의 안전도 보장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블레셋 군대로부터 그일라 성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는 왕으로써 마땅히 자기 나라의 도시와 그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사울이 오히려 그 성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죽이려 가는 사울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다윗의 믿음

다윗은 행동하기 전에 기도했고(하나님의 뜻을 여쭙었고), 기도한 후에는(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는) 행동했다.

3. 십 황무지의 거민들이 왜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였을까?(19) 십 거민들의 고발과 협조 약속에 사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22-23) 왜 그랬을까? 사울과 십 거민들의 치밀한 작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계획을 무력화 시키시는가?(27)

사람의 무지와 하나님의 지혜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들을 풀어서 매일같이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산을 뱅뱅 돌면서 서로를 만나지 못하게 하셨다. 다윗은 마치 레이더로 사울의 군대를 보고 피해 다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다윗이 얼마 전 그일라에서 무찔렀던 바로 그 군대-를 통해 다윗을 돕게 하셨다.

4. 유대 땅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았다.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5. 십 황무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요나단을 보내 주셨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해 주었는가?(16-17)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요나단과의 만남은 다윗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일라 전투에서의 승리와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로하신다. 사람을 통해 큰 위로와 용기를 받은 적이 있는가? 오늘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1. 엔게디 동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1-3) 그리고 이 때 다윗은 어떤 유혹을 받았는가?(4) * 밭을 가리다-혼자 동굴에 들어가게 하심. 겔옷을 벗게 하심/ 사냥꾼이 먹이 감이 되는 순간.

2. 사울을 보복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명분이 다윗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16:12-13), 사울이 자신을 여러 번 죽이려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회유하였다. 이에 대해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4,7)

사울에게 쫓겨 다니며 함께 고생하는 부하들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다윗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칫 그의 리더십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사울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사울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서 다윗은 후자를 택하고 있다.

3.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겔옷자락만 베었다. 왜 겔옷자락을 베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왜 마음에 걸린 행동인가?(5-6)

4. 8-15절에는 긴 다윗의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다. 다윗을 사울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을 각각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5.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 6절

2) 12절(롬12:19)

6. 10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셨을 때 쓰는 표현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신적 동의, 신적 증명이 된 사안이라는 뜻이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도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할 때가 어떤 때인가?

7.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원수를 잘 갚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단지 사울의 악을 무시하고 그를 악으로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죽이고 싶었으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억지로 참았던 것이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오히려 교만하고 자기 의만 쌓았을 것이다) 오히려 그를 용서하였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았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였을 때 기뻐한 적은 없는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8.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16) 다윗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사울이 소리 높여 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9. 뚝에서의 떡과 칼을 취하였던 경험, 아둘람 동굴의 경험, 그일라 전투의 경험 등은 다윗에게 어떤 확신을 가지게 했던 소중한 경험들이었다. 지난번에는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하시더니 (23:16-17) 오늘 엔게디 동굴에서는 직접 사울의 입을 통해 다시 한 번 다윗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다. 사울이 낭독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문은 무엇인가?(17-19)

18-23장에는 점점 강해지는 사울의 폭력에 대한 기록들이다. 그러나 24장에서는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한다. 사울의 목숨이 매우 위태하고 반면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저지우지 할 만큼 강해진 모습이다. 마침내 사울은 자기의 입으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말한다.(20) 본문에서는 권력 이동(power shifting)의 공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처소한 사울의 군사 3천명과 다윗의 군사 600명 이상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사울이 스스로 권력 이양을 발표하고 있다.

24-26장은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장면들이다. 이번에는 힘을 가진 다윗이 시험 받고 있다: “권력으로 폭력을 행할 것인가 아닌가?” 24-26장은 다윗이 육신적으로 당한 위협이 아니라 영적으로 당한 위협에 대한 기록이다. (과연 사울처럼 권력으로 폭력을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원수를 친히 갚을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다윗도 사울의 반역에 들것인가 아닌가?) 이 시험에서 다윗은 힘겹긴 하지만 잘 통과하고 있다.

10. 시 37:1-7을 다같이 읽어보자.

1. 다윗이 나발에게 무엇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나발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2.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기를 거절한 다윗이 오늘 나발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13, 22)

3. 본문 13절과 21:9-10을 비교해 보자. 언제 다윗이 실수하고 있는가? 17:47절과 비교할 때 다윗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12-13절과 23:2,4을 비교해보자. 다윗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다윗은 칼을 쥐었을 때 종종 실수하였다. 이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17:47)고 하였던 다윗이었다. 그렇나 전투 때 다윗은 사사건건 하나님께 여쭙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모습이 없다.

4. 집안의 멸망의 위기를 아비가일이 잘 극복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남편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위한 것이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30-31)

5. 아비가일의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다. 아비가일은 사무엘이 죽고(1절)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다윗에게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선지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자.(26-31)

6.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이 다시 깨닫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32-34) 19:5과 비교해보자.

7. 복수의 위기를 잘 극복한 다윗을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사탄의 모습을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보자(마3:17-4:1, 마16:16-22, 고전10:12)

8. 나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나발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겠는가?

사울도 나발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당당히 합격하였던 다윗이 지금 나발이라는 한 천한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시험에서 떨어질 위기를 맞고 있다. 친히 원수 갚지 않는 시험, 복수하지 않는 시험에서 차라리 사울은 쉬운 상대였다. 손쉬운 나발이 오히려 어려운 상대였다. 다윗의 진정한 적은 사울이나 골리앗이 아니라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복수심이다. 골리앗이나 사울뿐 아니라, 나발도 하나님께서 죽이실 자이었지, 다윗이 친히 죽일 자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나발에 대한 다윗의 폭력과 복수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요, 나발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철저한 교만이었다.

순결한 왕국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하셨다. 이 왕국은 단순히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의 첫 시작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피흘림이 없는 완전무결한 왕국 건설을 하기를 원하셨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잘 따라오던 다윗이 지금 막 불량하고 어리석은 한 사람 나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려 하고 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선지자처럼 보내셔서 다윗의 무고한 피흘림의 실수를 막으셨다.

다윗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나발의 피를 흘림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나발과 같은 자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셨다. 메시아를 욕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저주하고 깔깔 대며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 그들은 분명 어리석은 자들, 나발들 이었다.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하늘로부터 임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아셨기에 그들에게 당장에라도 임할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를 잠시 연기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자신을 부인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피를 흘려주심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셨다. 다윗의 왕국이 피흘림이 없는 왕국이었다면 예수님의 왕국은 자신의 피흘림으로 세우진 왕국이었다. 다윗과는 전혀 다른 더 큰 임금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이전에는 나발을 죽이셔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셨지만, 먼 훗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나발같은 우리를 살리셨다.

1.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일어났는가?(1) 원문은 1절이 ‘그리고’(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된다. 어떤 일 후에 이런 결심을 하였는가? 이전에도 똑같은 일을 한 적이 있다.(21장) 그때 미친체하고 겨우 도망하였다. 이전에 실패했던 전술인데 왜 똑같은 장소, 같은 왕에게로 또 다시 피신해 갔을까? 그때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다윗이 가드왕에게 얻은 땅은 어디이며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는가? 그곳에 머물면서 다윗이 공격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8) 그리고 그 동안 다윗이 친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누구를 침노하였다고 보고하였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시글락; 블레셋과 유다의 국경)

3. 왜 패전국들의 군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오지 않고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죽였을까?

만약 포로들을 잡아 아기스 왕에게로 데려 가면 다윗이 유다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공격한 것이 들통 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11) 다윗은 이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다윗이 공격한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다. 다윗은 유다지파이다. 다윗은 지금 유다의 남방 지역을 공격한 것처럼 속이면서 사실은 유다를 위해 싸우고 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장군의 신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다의 원수들을 진멸하고 있다.

4. 다윗의 계획은 일단 성공하였다.(4) 지긋 지긋한 사울의 공격도 없고, 황량한 사막의 도피 생활도 더 이상 없었다. 시글락이라는 땅에 정착하여 가족들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한 삶은 다윗에게 한 가지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했다. 무엇인가?

5. 다윗의 거짓 보고와 넘쳐나는 전리품들을 받을 때 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했고 다윗이 유다와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12) 다윗의 신분은 점점 높아갔고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 결국 다윗은 어떤 요청까지 받게 되었는가?(28:1-2)

슈대 광야가 안전한가? 시글락이 안전한가?

이스라엘과 이방 땅의 경계를 넘나들던 다윗이 한 동안 유대의 경계 안에 오랫동안 잘 머물러 있었다. 비록 그곳이 광야이고 날마다 도망 다녀야하고 사울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편할 날이 없는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다윗에게는 안전해 보이지 않았던 유다 광야가 블레셋 왕의 인정과 평안한 삶이 보장 되어 있는 시글락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안전했다.

6. 왕이 자기 백성을 치다니? 다윗은 스스로의 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야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면하게 하시는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무엇이라고 호칭하고 있는가? 블레셋 방백들의 고소를 들었을 때

(29:3-5)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는가?

그동안 하나님은 사무엘, 요나단, 사울,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 계속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오늘은 블레셋의 방백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7. 29:4절과 시76:10을 비교해 보라.

육신의 안락 뒤에 도사리고 있는 심각한 영적 위기

조금 전까지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다.(24. 26장) 천한 사람 나발까지도 죽이지 않았다.(25장) 그런데 지금 그런 다윗이 자기 백성을 죽여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만약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갔더라면 그는 이번에는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편안한 육신의 안락 끝에 다윗은 지금 엄청난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은 피흘림이 없는 다윗 왕국(메시아 왕국) 건설을 위해 또 한 번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때 다윗을 시기하고 믿지 못하는 방백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영락없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8. 블레셋의 침공 앞에 사울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18:8~) 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왕세 의해 버림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꿈, 제비뽑기(우림, 둠뎀),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막혔다. 제사장은 자신이 모조리 죽였고(22장) 예봇은 아비아달이 도망가면서 다윗에게로 가져가 버렸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지 않으시자(28:15) 사울은 마침내 신접한 여인(마녀)을 찾아 가서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올리게 한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마녀를 대신 앉혀 놓고 말았다. 이것은 사울의 타락의 절정이고, 그의 통치가 끝났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또 다른 왕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신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지혜

다윗이 사울을 무서워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것은 분명히 불신앙적인 큰 잘못이다. 그 결과 그는 계속해서 거짓을 팔아야 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뻔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다.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셨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 왕을 통하여 다윗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 블레셋 방백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29:5) 이상하리만치 아기스 왕은 의심하지 않고 다윗을 믿는다.

사울보다, 다윗보다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

명분상의 왕 사울도, 사실상의 왕 다윗도 자기 백성을 버렸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여호와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다윗은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버렸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버리셨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신을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보다, 다윗보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다.

1.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환한 미소로 반겨 줄 것을 기대하면서 삼일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온 다윗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폐허로 변해 버린 마을이었다. 아말렉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2) 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까? (27:8-9)

2. 끔찍한 현장을 바라보는 다윗과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2-4) 급기야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하였다. (6) 일이 이쯤 되자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3. 크게 군급(곤란)할 때 사울과 다윗은 각각 어떻게 처신 하였는가?

- 사울 (28:15)

- 다윗 (30:6)

4. 다윗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7-8) 실로 얼마 만에 하나님을 찾았는가? 사울과 어떻게 다른가? (28:7)

진짜 용사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 안전지대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다윗이 지금 자기 부하들의 독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였다. 이제까지 다윗이 처한 그 어떤 위기보다 위험한 순간이다. 이 곤란한 위기에서 다윗의 믿음의 저력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하고 있다.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6) David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NASB)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NIV) 도무지 헤어나기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야 딸려 칼과 창보다 더 큰 무기이다. 다윗, 그는 과연 용사였다. 빈 손 들고 앞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용기, 이것이 믿음이다.

5. 시글락을 공격하여 보기 좋게 다윗을 복수하고 블레셋과 유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한(16절) 기세등등한 아말렉 군대를 육 백 명이 모두 쫓아가도 대항하기 힘든 관국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200명이 주저앉아 버렸다. 이런 절대 불리한 전쟁에서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인도하셨다.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6.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고 잃은 것을 모두 되찾아오는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어떤 사실을 깨달았을까? 아말렉 전쟁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다윗, 아말렉, 그리고 사울에게 각각 어떤 사실을 교훈하려 하셨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십신이 지칭대로 지쳐버린 400명의 군사로 각종 전투에서 승승장구한 아말렉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굶은 아이 한명으로 인해 너무나 싱겁게 끝나 버렸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고스란히 원상 복귀를 하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이고 계신 것이 특기였다.

7.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처져 있던 200명에게도 골고루 분배하고, 아말렉에게 빼앗긴 물건들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돌려주었다. 자기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바닥에까지 떨어졌던 다윗의 리더십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누가 그를 이렇게 높이셨는가?

8.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 (31장)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모든 것이 함락하여 선을 시춤

시금악의 비극은 분명 다윗의 복신앙과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 자신의 처로 인한 댓가를 아말렉을 통해 톡톡히 치렀다. 그러나 아말렉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였다. 자신의 복신앙과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예상치 못한 승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다윗 왕국 건설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력한 싸움이 되었다.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함락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메시아 왕국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복신앙자 다윗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간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죽게 하셨다. 이런 다소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때문이다. 결국 다윗의 엉뚱해 보이는 승리한 사울, 특히 요나단의 억울해 보이는 죽음을 통해 오늘 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볼 수 있어야 하겠다.

1. 1절에 의하면 시글락 전투(30장)후 다윗은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렀고 제 3일에 사울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 사실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함일까?
2. 아말렉 병사가 다윗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인가?(1-4) 사무엘상31:3-6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그 보고서의 거짓된 부분을 찾아보라.
3.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스스로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였다. 도데체 이 소년은 누구이며 전쟁터에서 무엇을 했던 자였을까?
4. 아말렉 소년이 사울 왕이 면류관과 팔고리를 증거물로 들고 다윗에게 달려와서 왜 거짓, 과장 보고를 하였을까?
5.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비보를 듣고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11-12) 다윗의 이런 행동이 그의 진심이였을까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어느 정도 있었을까?
6. 내가 진심으로 행한 선행이 오해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7. 다윗이 사울을 무엇이라고 불렀으며 그 아말렉 병사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14-15)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14절)
8. 당신은 자기를 미워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망했거나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솔직히 말해보자.
9. 다음 두 구절을 보면서 원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 해 보자
 - 읍 31:29-30
 - 시 35:11-14
 - 시 7:8-10/ 11:4-5/ 15편
7. 다윗의 활노래(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를 다같이 읽어 보자(19-27) 가장 감명 깊은 구절을 말해보자.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구절은?

1.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혼란하였다. 블레셋이 언제 다시 침공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 상황이다. 이 때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행보를 결정하는가?(2:1)

* 헤브론(마므레)-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머물고(창 13:18) 묻힌 땅이다(창 23:19). 유다 지파 갓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바로 그 땅이다.(수 14:12). 유다지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땅으로 낡 유다의 초대 수도이다.

2. 우리 인생은 따지고 보면 결국 선택(포기)의 연속이다.(선택은 포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하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해 보자.(잠 3:5-6)

3. 마침내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다.(4) 반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운다.(8-9) 한 지파의 왕과 11지파의 왕, 이처럼 다윗 왕국의 시작은 참으로 초라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람의 힘(human power)에 의해 세워진 반면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능력(divine power)에 의해 세워졌고, 이스라엘은 힘으로 세워진 나라인 반면(power-driven) 유다왕국은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이다.(faith-driven) 이 두 나라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3:1)

시 127:1-2 여호와의 집에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의 집에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되다 너희가 일찌기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에서 그 사당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4.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1) 사울의 시신을 장사한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2:5) 사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 해 보자(삼상22:18-19)

쇼암과 사브넬 사시세 실어난 시야기 (2:12-3:30)

아사헬(요압의 동생)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쫓다가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었다. 한 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결국 자신이 배후에서 나라를 장악하기 위한 음모였다.(3:6) 결국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을 찾아와 모든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줄 것

을 약속하였다. 다윗은 아브넬을 잘 접대한 후 그를 돌려보내었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요압이 아브넬을 추격해서 그를 죽였다. 이것은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 때문이었다.(3:27)

2)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유다백성들은 다윗 왕을 어떻게 오해하였으며 다윗은 그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3:31-37)

3) 레갑과 바아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했는가?(4:11-12)

5. 결국 11지파 대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5:3) 다윗은 ()세에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 예루살렘에서 ()년, 총 ()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였다.(5:4-5)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은 다윗에게 어떤 훈련의 기간이었을까?

6. 하나님을 믿는 자들(believing in God)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trusting in God)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시기와 방법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따낸 리브가와 야곱의 실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의 시간예(In His Time)

1.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하루 하루 살동안 주님 인도 하시리 주 뜻 이를 때까지 기다려

2.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뤄질 때 우리들이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
that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 **마음 열기**/ 지금 당신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1. 언약궤(법궤)에 대해서 알아보자.(출25:10-22)

1) 언약궤/법궤(the ark)

- 재료 - 사이즈 - 내용물

2) 속죄소(the mercy seat)

- 재료
- 위치
- 사이즈
- 의미

2. 엘리 제사장 시대에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일이 있었다. 그 뒤 이스라엘은 되찾은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해 두었다. 이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의 어떤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가? (역대상13:3)

3.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그가 왕이 된 후 맨 먼저 그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다. 왜 다윗이 이토록 법궤 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법궤가 다윗에게는 왜 그토록 중요했는가?

4. 왕국의 군사, 행정의 재정비보다 법제 이전이 다윗에게는 더 시급하고 중요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법제를 찾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5.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이나 법궤는 종교 상징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였다. 성막이나 법궤에 대한 그의 간절함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었다. 어느 정도로 간절하였는지 살펴 보자. (시132:2-5.8) 당신은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고 있는가? 어느 정도로?

이가보 후 70년

사무엘상 4장에는 블레셋의 두 번의 승리한 법궤 빼앗기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반면,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두 번의 승리한 법궤를 찾아오는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기록함으로써 (5:17-25)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삼상 4:21) 완벽하게 회복

된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흠니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법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법궤 빼앗김) 얼마 후 하나님은 블레셋의 신들을 깨뜨리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지만, 사울은 이 법궤를 찾으려하지도 않았다. 약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시고 변방(벧세메스)에 쫓겨나 계시다가 다윗에 의해 비호소 찾은바 되었다.

6. 다윗이 법궤를 어떤 방법으로 옮겼으며 도중에 일어난 불상사가 무엇인가?(3-9)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웃사가 법궤를 붙잡은 것이 왜 죽을 일인가?(민 4:15,19,20)

7. 이전에 벧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온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오만)70인이 죽기도 했다.(삼상 6:19) 법궤를 수레로 옮긴 것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었다. 언약궤를 옮기려는 열정은 순수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찾고자하는 간절한 열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지금 하나님을 찾는 나의 방법이 혹시 내가 만든 새 수레는 아닌가?

8. 왜 다윗이 법궤를 오벧에돔의 집으로 돌렸는가? 사람을 죽인 법궤를 자기 집에 들여야 했을 때 오벧에돔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의 결심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9. 법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오늘날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10. 법궤를 다시 메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가? 미갈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무엇인가?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 속에 찾아 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Into my heart,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Come in today, Come in to stay,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I. 다윗의 열심: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리라

1.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다. 어떤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1)

2. 그동안 전쟁터 쫓아다니느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제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되자 다윗은 곧바로 성전 건축을 결심한다. 왕국이 평안할 때 일반적으로 왕들은 잔치를 하거나 엉뚱한 일들을 저질렀다. 법궤나 성전 건축은 모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생활을 뜻한다. 요즘 당신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어떠한가? 너무 바빠서, 아니면 이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잔치할 준비를 하느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중단되지는 않았는가?

영적전쟁

전쟁하느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전쟁에 휘말려 드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는 삶은 이미 전쟁터에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싸움의 대상은 정작 보이지 않는다. 이 전쟁에서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다. 사탄은 우리를 이 싸움터에 몰아넣고 팔짱끼고 즐기면서 관전하고 있다. 사탄 자신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기는 것이다.

3.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고자 했던 두 가지 이유

1) 2절-

2) 신 12:10-11

4. 이런 다윗의 순수하고 성경적인 열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의를 정중히 거절하셨다. 하나님은 성전을 원치 않으신 것이 아니었다.(나중에는 성전의 치수까지 친히 꼼꼼하게 설계해 주셨다) 단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왜?

1) 피를 많이 흘린 자인고로(대상 22:7-8)

2) 신적자유(6-7절)

경계해야 할 영적 욕심

다윗 자신도 모른 채 숨어 있었던 그의 영적 욕심: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다.(칼빈) 성전 건축을 위한 그의 의도나 열정은 좋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솔로몬에게 예약된 것이었다. 내 때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증과 영적 욕심, 경계해야 할 것들이다.

5.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보다는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는 든든한 하나님의 왕국이 먼저 세워져야 했던 것이다. 다윗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나?(11)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관심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가정을 어떤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실까? 시편 127:1절을 암송해보자.

6. 다윗이 세운 집(home)은 어떠했는가? (솔로몬,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II. 하나님의 열심: 내가 네 집을 세우리라

7.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11)

8. 내가 네 집을 세우리라

- 1) 12-13절: 네 자식을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 2) 14-15절: 그가 죄를 범하면 징계는 하려니와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 3)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너지지 않는 다윗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세우실 집은 번져 가면 징계는 하지않 그 집과 나라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다윗언약)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잘 증명되었다. 수많은 실수한 우상 숭배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바벨론 포로 등)는 하셨지만, 다시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그 약속은 마침내 메시아의 탄생으로까지 실수 없이 이어졌다.

9.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

1) 감사와 찬양(18-24)

a. 자신의 재발견: "Who am I?" 다윗은 처음에 자신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이 그럴 만큼 존귀한 자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생각보다는 가치 없는 자) 또한 이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먼 미래의 것이고 영적인 것이었다.(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집 건설)

b. 하나님 재발견: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생각보다는 높고 거룩하신 분)

2) 탄원(기도)(25-29)

1. 다윗이 이긴 나라들의 위치를 확인해 보자

- | | |
|--------------------|--------------------|
| 1) 블레셋(이스라엘 남서쪽) | 5) 소바(더 북쪽, 다메섹 위) |
| 2) 모압(요단강 건너편의 남쪽) | 6) 에돔(이스라엘 남쪽) |
| 3) 암몬(요단강 건너편의 북쪽) | 7) 아말렉(더 남쪽) |
| 4) 다메섹(이스라엘 북쪽) | |

2.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던 헤브론 땅과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토를 한 번 비교해 보자.

3. 모압 백성들을 세 줄로 세워 두 줄은 죽이고 한 줄만 살려주었다. 모압은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자기를 도와준 나라요, 그리고 증조할머니 룻의 고향인데 너무하지 않은가?

4. 백전백승 다윗의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가?(8:6,14) 7:9-11절의 약속을 하나님은 과연 이루셨는가?

5. 승리에 대한 다윗의 두 가지 태도가 무엇인가?

- 1) 8:11-12
- 2) 8:13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연약함

8장의 전쟁 승리는 "내가 네 집을 세우리라" 7장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인간 다윗의 연약함이 살짝 숨어 있다.(8:13) 겉손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 번 인간의 교만과 연약함을 본다.

다윗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공로 의로 다스렸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다. 하나님은 왕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율법책을 가까이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 17:18-19) 이것은 또한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리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기도 했다.(렘 33:15)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6. 왕국이 점점 견고해지고 안정한 때에 다윗은 사울의 가문을 향해 자신의 주의를 돌린다. (이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함-7:1) 9:1,3,4절에 나타난 다윗의 3번의 질문을 통해 그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는가?

7.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베푼 호의(은총)이 무엇인가?(9:7)

8. 8장의 천하를 호령하는 다윗의 모습과 원수의 자손, 지체 부자유자 므비보셋, 사실은 사울의 가문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9. 다윗 앞에 선 므비보셋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9:8) 신약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10. 므비보셋이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9:1,7. 삼상 20:14-15 참고) 불쌍한 자신의 처지 때문인가, 아니면 다윗의 넓은 마음씨 때문인가?

제세 드-자격이 없지만 약속 때문에 받는 일방적인 사랑.

11. 다윗, 요나단, 므비보셋의 관계를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과의 관계로 바꾸어 설명해 보라.

12. 9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다윗의 은총, 예수님의 은총

9장에는 므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한다.(7,10,11,13) 식탁 교체, 식탁 초청은 가장 친근한 사랑의 표현이다.(계 3:20) 죽어 마땅한 죽은 개와 같은 도무지 자격 없는 므비보셋이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서 먹은 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은총이었다.

한편, 예수님은 죽은 개와 같은 우리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떼어 주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먹으실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계 3:20), 세상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이다.(계 19장) 므비보셋이 받은 다윗의 은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다른 한 면으로 므비보셋의 왕의 식탁 참여는 먼 훗날 바벨론의 포로기간 중,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죽는 날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상에서 먹은 것과 연관이 있다.(왕하 25:29) 이것은 인간의 법치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을 보여준다.

1. 이전까지 다윗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인간관계에서도, 전쟁에서도. 골리앗도, 사울 왕도, 그리고 수많은 적군들도 다윗에게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백전백승,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오늘 한 가녀린 여인 앞에서 무참히 깨어지고 만다. 오늘 다윗의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의 첫 출발점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1)

2. 다윗의 범죄와 하와의 범죄의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2, 참고/창3:1-6)

전쟁터보다 훨씬 위험한 전쟁터, 왕궁

다윗이 만약 전쟁에 나가기만 했어도 이런 저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추구하는 육신의 안락과 평안이 무서운 전쟁터가 될 수 있다. 지금 다윗은 우리아가 처한 전쟁터보다 더 위험하고 심각한 전쟁터에 내 몰렸다. 전쟁터에서 다윗은 실패한 적이 없었다. (골리앗, 사울, 그 외 나라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궁전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전쟁에서 한 패를 당하고 망했다.

3.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다윗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자, 다윗이 계획한 두 번째 계획은 무엇인가?(13) 술 취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4.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11)

5. 법제(하나님)를 대하는 우리아의 태도를 보았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삼하 6장과 관련해서)

6. 술이 취한 우리아가 이번에도 아내에게로 내려가지 않는 이 눈물겨운 우리아의 충정을 보았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데 다윗은 결국 어떤 결정을 하는가?(14절 이하)

술 취한 다윗

술을 먹어서라도 우리아를 그의 아내에게로 보내고자 했던 그의 계획은 우리아와 하나님의 의해 실패하고 망했다. 이때가 다윗이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다윗은 더 끈질긴 계획을 하고 있다. 술 취한 우리아는 지금 제정신이고 멀쩡한 다윗은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니다.

7. 민수기 22장의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찾아보자.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그리고 중요하게 사용된 한 단어가 있다면 "보내다"라는 동사이다. 1절에 다윗이 군사들을 전쟁터로 보낼 때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잘못된 보낸들이었다.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보내고, 다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보내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요압에게 사냥을 보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 오고 갔는데 우리아는 가지 않았다. 누가 우리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는가?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계획이 방해받을 때, 내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반대를 만날 때, 그 거절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의 실수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아가 자신의 계획을 거절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나뭇을 죽이는 실수를 막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아의 거절을 통해 그의 죄를 돌이키려 하셨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를 공개하기를 원하셨다. 왜?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한 기도 제목

지금 다윗의 형편은 골리앗과의 싸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어렸고, 무명이었고, 또 성숙하지도 않았을 때였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나이도 많고, 유명인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이 훈련된 성숙한 상태에 있다. 그런 다윗이 오늘 한 가녀린 여인 앞에서 무참히 깨어지고 꺾인다. 천하의 다윗이 이렇게 연약하다면 우리들이야 뭘 할 것이 있겠는가? 다음 성경 구절들을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자.

* 잠 4:23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 시 119:37 "네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8. 요압은 다윗은 군대장군이었지만 아브넬을 죽인 일로 다윗과 관계가 원만치 못하였다.(3장) 요압은 다윗의 범죄에 동조함으로써 다윗의 위치를 약화시킬 수 있었고 다윗이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윗과 요압의 완벽한 공모로 이 사건은 완전범죄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27이하)

다윗 왕국의 두 기둥 요나단과 우리아

이들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무너져가는 다윗 왕국을 지탱해주었던 두 기둥이었다. 그들은 다윗과 다윗 왕국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린 영웅이요 순교자들이었다. 다윗 왕국은 강한 다윗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기보다는 힘없이 죽어간 이들 두 사냥에 의해 세워졌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귀한 희생의 터 위에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을 세워가고 계시다.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이 두 사냥이 다윗보다 더 큰 상급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1. 11장에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오게 함으로써 죄를 범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한 다윗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 누구인가?(1)

◆ 범죄한 다윗을 찾아 가시는 자비의 하나님

밋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깊은 사랑의 잠을 자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사함을 보내셔서 그를 깨우기 시작하셨다. 약 천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그로부터 2천년이 지난 어느 날 깊은 사랑의 잠을 자고 있던 나를 친히 찾아 오셔서 나를 깨워 주셨다.

2. 나단 선지자의 고발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을 들은 다윗의 판결은 무엇이었나?(5,6)

3.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13) 한 나라의 왕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시인하기란 쉽지 않다.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편인가? 경험을 이야기 해 보자.(참고/잠9:7-8)

■ 행복한 죄(Happy sin)-어거스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복이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필요를 많이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신령이 가난한 것이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하나님의 통치하심)를 얻는 복을 누린다고 약속하셨다.

4. 형제가 범죄 한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1) 약 4:11-12/마 7:1-5 (비난)하지 말라
- 2) 갈 6:1/마 18:15-17 (책망)하라
- 3) 마 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비난자가 되기보다는 책망자가 되고, 그것이 정 힘들 때는 기도자가 되라"

▣ Coram Deo(Before God)

한 나라의 왕으로써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대해 한 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

였다"라고 자백을 했다. 악한 부자에 대한 정의감, 억울한 가난한 사상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그에 남아 있던 일말의 종교심이 그를 회개하게 하지 못했다. 다윗은 지금 나단이나 바세바와 우리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선 그 순간 다윗은 형이 아니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가능하다. 죄의 자리는 정죄와 비난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와 구원, 회복과 생명의 자리이다.

5. 다윗의 죄는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할 죄였다.(레 20:10-누가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찌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스스로 자신이 세우신 율법을 어기시는가?

1)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였기 때문(특히 사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 "내가 죄를 범하였지만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삼상 15:30) 그러나 다윗은 내가 죄를 범하였다는 말 외에 변명하지 않는다.

2)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기 때문. 하나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부동의 원동자(unmovable Mover)가 아니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통회하는 중에 의해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자신의 판결문을 무효화하시는 분이시다.

* 출 34:6-7/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심

* 렘 18:7-12/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 애 3:31-33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6. 15-17절을 읽어보자.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땅에 엎드려서 7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당신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가? 이 칠후 같은 고통의 7일을 통해 다윗이 얻은 것이 무엇일까?

7.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로 인해 보응을 받아야 했고(10,11,14) 그것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용서는 받았는데 대가를 치른다? 이것인 진정한 용서인가? 아들이 죽었는데 그게 무슨 용서인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당신은 자신이 범한 과거의 죄 때문에 어떤 보응을 두려워 해 본 적은 없는가?

8.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도 벌하실 때 다윗은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다. 간음으로 인해 태어난 아들이 죽은 것이 다윗에게 슬픈 일만은 아니었다. 그 아들의 죽음이 이미 용서 받은 다윗에게 어떻게 유익하게 작용하였을까?

◎ 용서 후에 받는 벌-감미로운 징벌

용서도 받고 징계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직 더러운 폭군으로 잘 못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도무지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하신다면 그것 역시 사랑의 성품의 발로이지 한푼이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 징계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신 후에라도 징계(대가)를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용서의 대가로 반드시 징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징계하시느냐 않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 징계하지 않으시면 감지덕지이고, 만약 징계하신다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나를 처벌(한푼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정하시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징계는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한다. 용서의 확신 후에 받는 징계는 아프지 않다.(다윗은 아이의 죽음 소식을 듣고 40 후 몹을 정돈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징계를 받든 받지 않던 아무 문제가 없다.(가나안 함께라면 고독마저도 감지롭다)

■ 징계(punishment)와 결과(consequence)의 차이

아이의 죽음은 죄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한 징계(보응)는 아니라 결과이다. 용서는 받지않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에게 오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이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보다 훨씬 커서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해준다. 더 큰 축복이 있다.(정근모 장로님) 혹, 용서를 받았는데도 다소 혹독한 결과가 찾아온다면 기뻐해도 좋다. 받을 축복이 그 고통만큼 클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 고통보다 더 큰 축복,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도 남은 축복이 주어질 싸인이기 때문이다.

8. 징계이후 하나님의 용서의 표로 다윗에게 일어난 일 두 가지가 무엇인가?(24-31) 당신도 범죄 이후 회개함으로써 이러한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이야기 해 보자.

오묘하신 하나님의 지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과 우리아 살인 사건은 다윗 생애에 잊을 수 없는 큰 죄였다. 그런데 아 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 메시아 계보를 잇게 하셨다. 인간의 죄악 실수를 오히려 역 이용해서 당신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지혜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강함)이 우리의 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악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우리의 무지를 넉넉히 이기 시기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 5:12)

1. 다윗의 죄와 마찬가지로 암논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레20:17) 이스라엘에 엄격히 금지된 죄였다. 이러한 죄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암논이 저지른 죄를 안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21) 이런 큰 죄를 지은 아들을 왜 징계하지 않았을까?

- 1) '그가 장자인고로 암논을 사랑하여, 꾸짖지 아니하니라'
- 2) 자신도 똑같은 죄를 범한 전과자이므로

2. 부모의 편애를 받았거나 지금 자녀들을 편애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3. 오늘 다윗은 마치 엘리 제사장을 보는 것 같다. 만약 다윗이 암논을 징계를 하였다면 압살롬의 살인 사건, 그 후 반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참 아버지는 징계한다. [히 12:8-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잠13:24-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1)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징계와 억울한 징계 2) 자녀가 잘 못했을 때 잘한 징계, 잘못된 징계, 안 한 징계가 있으면 이야기 해보자.

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잘못 사랑한 암논, 잘못된 방법으로 여동생을 보호하려 했던 양상훈 뿐 아니라, 자식을 징계하지 않은 다윗 역시 사랑의 실패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 죽이셨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는 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지만, 한 마디 댓구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셨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아들을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게 하셨다. (Only His great eternal love made my Savior go. 찬송가 87)

3. 암논과 압살롬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힘(폭력)으로 이루어냈다. 다윗이 밋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모습과 같다. 다말 사건은 단지 암논의 정욕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죄(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이기도 하다.(12:11) 자신의 발걸음 그대로 밟아가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4. 부모의 죄를 자녀들이 반드시 되풀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라는 말이 어느 정도 사실로 여겨진다. 주위에 이런 의미에서의

'부전자전'의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만약 나의 자녀들이 나와 똑같은 실수와 범죄를 하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이것만은 나를 닮지 말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무엇인가?

5. 압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간음을 행한 것은 단지 다말이 얼굴이 예뻐서 때문처럼 보인다. 이점은 다윗이 밋세바를 대하던 것과 같다. 오늘날도 여성을 대하는 남성의 생각이 압논과 별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성의 외모에 매력을 느끼는 것을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로 인해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특히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가?(벧전3:3-6)

무서운 놈 압살롬

압논의 다말 강간 사건, 양살롬의 압논 살해 사건, 양살롬의 다윗 반역 사건 등, 13장 이후의 기록들은 사실 장남 압논과 (둘째 길르얌은 별 기록이 없다. 아마도 일찍 죽었을 수도) 셋째 양살롬과의 항권 다툼 이야기이다. 양살롬의 압논 살해는 여동생에 대한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이 동기이기도 하다. 그는 얼마 후 아버지다윗 항위에서 몰아낸다. 양살롬, 그는 분명 압논 보다 무서운 놈이다.

예수님이 필요한 다윗

미켈란젤로의 조각 다비드 상은 다윗을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을 그렇게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겉과 흠이 많은 자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다윗마저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 편 다윗은 그의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본문의 저자는 피 흘린 자로 얼룩진 다윗의 실수를 통하여 그를 흠없게 하시려고 대신 하나님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6. 다윗은 심히 화를 냈는데 다말의 친 오빠인 압살롬은 어떻게 반응했는가?(22) 왜 화를 내지 않고 그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을까?

7.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다.(엡4:26) 압살롬에게는 해가 지는데 2년이 걸렸다.(23) 풀지 않은 해묵은 미움과 복수심의 감정이 내게는 없는가?

압살롬의 반란

압논이 다윗을 변한 후 압살롬은 2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압논을 살해하였다. 이 일로 인해 압살롬은 그릇으로 도망하여 3년을 지냈다.(13:39)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3년 후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다. 그 후 압살롬은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고 4년 후 마침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왕위를 차지한다.(15:7)

1. 도망가는 다윗을 따랐던 자들이 누구인가?(18) **그렉**, **블렉**, 가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삼상 30:14, 삼하 8:18, 20:7,23) 이들의 충성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2. **가드 사람 잇대**와 다윗의 대화를 보자.(15:19-21) 어떤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는가?(룻 1:16-17) 잇대는 블레셋 사람으로 이스라엘 특히 다윗의 원수나라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가장 아름다운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원수 나라의 사람을 통해 궁지에 빠진 다윗을 한 없이 위로하고 계신다. 곤궁하고 외로웠을 때에 잇대처럼 당신의 고통에 동참함으로 위로와 힘을 주었던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3.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과 신약의 예수님의 비슷한 점을 다음 인물들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생각해 보자.

예수님-다윗

가롯유다-(압살롬 , 아히도벨)

우는 백성들-()

4.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과의 만남-아비아달은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죽인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다.(삼상 21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도망가는 다윗을 돕기 위해 취한 행동은 무엇이며, 다윗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반응하였는가?(15:24-25) 법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신에 가까운 확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다. 다윗 역시 법궐을 끔찍이 위하였다.(삼하 16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궐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가?(25-26)

Here I am. I am ready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다윗에게 법궐은 가장 필요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법궐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일어났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어떤 결과가 벌어지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달기는 신앙의 표현이다. 전쟁에서의 승리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켰기 때문에 법체 소유를 포기한 것이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26)-Here I am. I am ready.

5. **아히도벨과 후새**-다윗의 전략 참모였던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갔다. 한편 다윗의 오랜 친구인 후새는 다윗을 눈물로 맞이한다. 자신을 따라 나서겠다는 후새에게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부탁을 하였다. 어떤 부탁을 하였는가?(32-34)

6. 이제 다윗의 미래는 전적으로 후새에게 달려있다. 후새가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느냐 아니면 반역자의 자리에 함께 앉느냐? 그러나 사실은 후새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다윗의 미래가 달려 있다. 후새를 보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7. 아히도벨의 지략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16:23) 이런 지략가가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인가?(15:31)

8. 아히도벨과 후새의 전략이 각각 무엇이였는가?(17:1-14)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욥12:17) 아히도벨의 최후(17:23)를 보면서 누가 기억나는가?

9. **시므이**와의 만남-사울왕 가문의 시므이가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하였는가?(16:5-8) 다윗의 군대장관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 하자 다윗은 어떻게 말하였는가?(16:9-12) 왕궁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시므이를 어떻게 대했는가?(19:21-23)

10.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윗과 같이 억울한 조롱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 때 심정이 어떠했으며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참고/잠언16:32) 당신은 주위 사람의 비난을 옳든 그르든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 본 적이 있는가?

11. 압살롬의 최후(18:9-15) 죽은 압살롬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애도하였는가?(18:33)

12. 오늘 공부에서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 다윗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이야기 해 보자.

1. 블레셋 군대와 다윗의 군대는 각각 어디에 진치고 있는가?(13-14) 왜 다윗은 자기 고향 베들레헴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어 했을까? 다윗의 용사들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 죽음의 위기를 무릎 쓰고 이들이 가져온 물을 땅에 쏟아버리는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가?(16) 이 장면은 군인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했을까? 또, 만약 다윗이 그 물을 마셨다면?
3. 18절의 아비새의 충성에 대해 돌아보자.(삼상 26:6-8, 삼하 16:9)

베들레헴 우물물을 그리워한 다윗

베들레헴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은 단순히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스라엘, 그것도 자신의 고향이 적군의 손에 넘어간 것을 안타까와하면서 베들레헴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이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다른 곳이 아닌 아둘람 동굴에 있다. 아둘람이 어떤 곳인가? 그는 그곳에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 온 400명의 군사들(훗날 이들이 다윗 왕국의 건국 주역들이 되었다)을 처음 만난 곳이었다. 즉 지금 이들이 진치고 있는 아둘람 동굴은 피난 시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임시 정부 수립 장소와 같은 크나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베들레헴 우물의 물은 찾은 것은 그 때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믿음과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 세 용사는 아마도 40년 전 이 아둘람 동굴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고, 다윗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희생적인 행동이 압살롬의 반란 후 다소 위축된 다윗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이들 세 용사의 행동은 요압이나 아비새보다 더 귀하게 평가받고 있다.

베들레헴 예수님

다윗의 그토록 그리워한 베들레헴 우물의 물. 그 곳에서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런 점에서 베들레헴 수복에 대한 그의 간절한 열망은 단순히 고향을 되찾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은 모르지만)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나실 마그간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하나님은 받아 들이셨을 법하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8Km 떨어진 골고다 산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하나님께 쏟아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죽음을 무릎 쓰고 세 용사가 떠온 베들레헴 우물물보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의 피가 더 고귀하다. 주의 보혈은 찬양 받기에 참으로 합당하시다.

4. 본문의 37명의 다윗의 용사의 이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용감무쌍한 용사 37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지만, 사실상 승리의 주역은 누구인가?(10,12)
5. 30명의 용사의 명단 중 가장 낮 잊은 사람은 누구인가?

용사 중의 용사 우리아

오늘 본문의 용사들이 이름은 영화가 끝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자막, 부록(Appendix)과 같은 장면이다. 가장 특이한 것은 그 유명한 요압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30인이거나 3인 보다 더 높은 자였기 때문에 빠져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의 이름 대신 그와 다윗의 합작으로 죽은 우리아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아의 이름으로 37인 용사의 이름이 끝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39) 우리아는 세 용사처럼 화려한 전과도 없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전쟁 중의 타의에 의해 특별 휴가 한 번 다녀오고 복귀 후 명령에 의해 전쟁터 최전방에 나가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이 전부이다. 자칫 잊혀질 뻔 했던 그의 이름이 명단 맨 마지막에 선명하게 빛나고 있다. 만약 다윗이 이 기록을 검사하다가 우리아의 이름이 빠졌다면 직접 그

의 이름을 적어 넣었을 것이다. 신약 성경 어디에 그의 이름이 또 한 번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가?(마 1:6)

강한 용사 다윗

다윗 왕국의 미래에 대한 약속-다윗이나 그의 용사들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승리. 이들은 다윗의 용사라기보다는 다윗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용사들. 왕국의 미래가 다윗이나 이들 용사들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강한 메시지. 다윗은 이들 용사들 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했다. 이것이 다윗이 강한 이유였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1) 용사 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국의 아무리 충성되고, 강한 용사들이라도 이들이 사탄을 이길 수는 없다. 이들이 적군의 손에서 다윗 왕국을 구할 수는 있었겠지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장차 세워질 메시아 왕국의 큰 용사는 예수님이시다. 다윗 왕국이 이들에 의해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강한 용사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질 것이다.

2) 다윗과 예수님

예수님은 다윗 보다 높고 귀한 분이시다. 천군 천사들의 옹위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충성된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가졌던 물(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땅에 쏟아 주셨다. 높임을 받는 다윗(18:3)-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명 보다 값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값진 분이시다.

6. 24장 인구조사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토록 화를 내시는가? 인구조사가 왜 그토록 무서운 죄인가? 모세도 인구조사 했는데(민수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혹하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는가?

23장의 용사들의 명단 열거가 주는 메시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고 있다. 세상의 왕과 똑같이 전략하는 순간이다.(삼상 8:4,20)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지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우상숭배의 죄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화내신 이유였다.

7.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16)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자비

위대한 성경 사무엘서는 인구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다윗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이야기로 끝난다. 회개하는 왕과 용서하시는 왕(하나님),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다. 재앙이 그친 것은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회개와 상관없이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14) 하나님이 분노하심을 후회했고(16-repent),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17-repent)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뒤에 계신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 다윗(우리)이 착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다. 내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해야 할 이유이다. 이 마지막 장면, 하나님의 용서와 다윗이 회개의 장면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회개해야한다. 회개하면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버리시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호 6:1/애 3:31-33을 찾아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

- 1)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해 회개하였지만, 예수님은 다윗(우리)의 죄를 위해 회개하셨다.
- 2) 다윗은 제단을 지어 하나님을 경배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다윗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24과 성전건축을 준비하다 (역대상 22:1-19)

1. 성전건축을 위하여 다윗이 준비한 준비물들을 살펴보자(2-4)
2. 다윗이 손수 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는가?(8)
3.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줄을 알았다. 그러면서도 수 많은 물자를 비축하여 성전건축을 준비하였다.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4. 성전건축을 준비한 다윗의 깊은 중심을 다음구절을 통해 살펴보자(역대상29:2-5)
5.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실로 엄청난 규모였다. 교회의 건물을 짓는데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외형적인 교회건물을 너무 거룩시 하는 것과 반대로 너무 경시하는 경향은 없는가?
6. 지금까지 신앙생활 중에서 교회건축이나 다른 주의 일을 위해 특별히 물질적인 헌신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함께 이야기 해 보자.
7. 오늘 공부를 통해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 해 보자.

25 찬양의 사람 다윗 (역대상 25:1-7)

1. 다윗은 군대장관들과 더불어 찬양대를 조직하였다. 다윗에게는 군대조직 못지않게 찬양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누구누구의 자손들이 찬양대원으로 선발되었는가?(1) 그 중 헤만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5)
2.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어야 한다. 찬양하는 자들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참고/골3:16)
3. 다윗이 세운 찬양대는 가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헤만의 14아들들은 모두 악기를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당신의 가정의 모든 가족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종종 가지고 있으면 소개해보자.

4. 25:7에는 찬양대 구성원들이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고 했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5. 위 문제 2번과 4번의 내용으로 보아 찬양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내적(영적) 자질과 외적 자질은 각각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당신은 이들 중 어느쪽이 부족한 편인가?

6. 다윗의 많은 시들 중에서 당신이 특히 좋아하는 시가 있으면 소개해 보자.

7. 그 외에 찬송가나 복음성가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곡이 있으면 소개해 보자. 한번 불러 보는 것도 어떠실지....

. 오늘 공부를 통해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 해 보자.

26과 놀라운 헌신과 고백 (역대상 29:1-19)

1. 성전건축을 위한 다윗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살펴보자(1-9)

2.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심에 대해 많은 신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입으로는 주의 것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좋은 예가 있으면 한두 가지 들어보자.

3. 다윗이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떤 신앙 때문인가?

◦ 11절/

◦ 12절/

◦ 14절/

◦ 15절/

4. 이를 보건대 신앙과 물질적인 헌신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5. 다윗의 헌금하는 신앙의 위대한 정신을 살펴보자(14,16,17) 이중에서 우리 자신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 보자.

6. 십일조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자. 말라기3:7-10절을

읽고 십일조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을 살펴보자. 십일조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자.

7. 오늘 공부를 통해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 해 보자.

5. 어떻게 해서 재앙이 그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곳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인지 살펴보자(역대하 3:1)

6. 다윗은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은혜와 용서를 베푸셨다. 사울의 사문은 완전히 멸망당하였지만 (삼하20,21장) 다윗의 집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다. 고난과 징계를 통해 영원한 멸망을 막으신 것이다. 고난과 징계가 왜 유익이 되는지 이 경우를 보면서 이야기 해 보자.

7. 오늘 공부를 통해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 해 보자.

28과 늑음의 비애(왕상1:1-10)

1. 다윗의 노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1-4) 젊었을 때의 다윗의 모습 중 기억나는 일들과 비교해 보면서 느끼는 점을 이야기 해 보자.

2. 다윗의 노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5-10) 아도니야가 다윗을 배반하게 되기까지 다윗이 아버지로서 잘못된 일이 무엇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가?(5-6) 자녀 양육에 대해 다음 두 구절을 보면서 이야기 해 보자.

◦ 잠언 29:15/

◦ 에베소서 6:4/

3.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 배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똑같은 실수를 범한다. 형 압살롬의 결말을 뻔히 보면서도 아도니야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 당신은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한 적이 없는가? (참고/고전 10:6-11)

4. 아도니야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각각 어떤 사람들인가?(7-8)

5. 다윗을 배반한 사람 중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변절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아비아

달에 관한 성경을 찾아보자(삼상22:18,20, 삼하15:35, 17:15, 20:25) 아비아달의 배신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이런 아비아달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가?

6. 당신은 노인을 어떤 마음 자세로 대하는가? 당신은 늙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권면하고 있는가?(전도서11:9-12:1)

7. 오늘 공부를 통해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 해 보자.

29위대한 유언과 죽음 (왕상2:-12)

1.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한 유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왜 그런 유언을 가장 먼저 하였을까?(2-4)

2. 이와 같은 유언은 자신의 생애 중에 경험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윗의 생애 중 어떤 경험이 그로 하여금 그런 유언을 하게 하였을까?

3. 만약 당신이 지금이라도 유언을 남긴다면 무슨 내용의 유언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이야기 해 보자.

4. 다음 세 사람에게 대해 다윗은 어떤 유언을 남기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각각 무엇인가?
◦요압(5-6, 삼하3:27-29, 20:7-10)

◦시므이(8-9, 삼하16:7-8, 19:18-23)

◦바르실래의 아들들(7, 삼하17:27-29, 19:33-39)

5. 다윗은 자신의 어려울 때 도와 주었던 자를 죽으면서까지 잊지 못했다. 당신에게는 바르실래와 같은 자가 없는가? 있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고 있는가?

6.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을 비교해 보면서 느낀 점을 각각 이야기 해 보자.

◦ 사울(삼하31:3-4)

◦ 다윗

◦ 솔로몬(왕상11:11)

. 오늘 공부를 통해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 해 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행13:22)

공군 청주 기지 교회

22과 다윗의 회개기도(시51편)

1. 이 시는 언제 지은 시인가? 지금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2. 죄속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회개하면서 영의 눈이 뜨게 되자 다윗이 발견한 너무나 기막힌 사실 4가지가 있다. 무엇인가?(3-5) 이중에서 당신이 가장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3.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자기가 체험한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8) 당신도 이런 고통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 보자.

4. 다윗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 3가지가 있다고 느꼈다. 이제 그 잃어버린 3가지를 회개함으로 돌려줄 것을 원한다.(10-12)

5. 다윗은 자시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 즉시 하고 싶어 한 것이 무엇인가? (13-15)

6.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17절)이라는 말의 의미를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라.

7. 오늘 다윗의 기도 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자신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해준 구절이 있다면 한 구절씩 이야기 해 보자.

사무엘 상하 주석

1. First and Second Samuel (WBC)-Eugene H. Peterson
2. NIV application commentary
3. Sermons on 2 Samuel by John Calvin